

오늘의 성경 한 장

2026.6.15.(월)-2026.6.20.(토)

사도행전 6-11 장

이렇게 성경을 읽읍시다.

1. 기도: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2. 성경읽기: 성령님을 의지하여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3. 가정 기도문 읽기
4. 기도: 깨달은 내용을 감사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관악교회**
고 신 중 회

Gwanak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08819 서울특별시관악구대학길 52(신림동), 3층

<http://www.GwanakChurch.org/> 전화: 070-8682-3991

사도행전 6 장

집사의 선출로 사도들은 말씀전파와 기도에 집중, 스데반의 기적 행함, 말씀 전파, 공회에서 고소당함 (찬송 161 장)

2026-6-15, 월

맥락과 의미

1-5 장에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 주십니다. 사도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6-7 장은 구제하는 문제로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목사와 집사, 그리고 장로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지를 가르쳐 줍니다.

1. 구제하는 일에서의 문제를 구제할 직분자를 세워서 해결 (1-6 절)
2. 구제하는 7명을 세운 결과 (7 절)
3.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집사 스테반 (8-15 절)

1. 구제하는 일에서의 문제를 구제할 직분자를 세워서 해결(1-6 절)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1 절). 보통 12 사도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혜로운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평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말합니다. 헬라어가 모국어로 된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2 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전파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기도가 흔들리면 교회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전념하기 원했습니다(4 절). 구제를 담당할 집사를 세우도록 전체 교회에 요청합니다.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3 절). 이것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사람의 주관적인 인정이 아니라 성령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여러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성령과 지혜(3 절), 믿음과 성령(5 절), 지혜와 성령 (10 절), 즉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믿음을 풍성하게 주신 사람들이 집사직으로 선택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그분이 선택하신 성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일으키십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직분자를 일으키십니다. 집사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교회를 대표하여 나눔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눔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가난한 성도, 나아가 가난한 불신자들과 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도와줍니다.

우리 각자도 이런 집사적 성품(성령충만)에서 성장하도록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집사적 섬김을 하도록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도와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여”(2,5 절)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7명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일곱 집사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후손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재정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대표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담당한 7 명을 지금의 “집사”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7장에 보면 스테반은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곱 명 중 한 사람인 빌립도 전도하는 일(8:5, 21:8)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도 맡고 복음 전하는 일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에는 구제하는 일을 맡은 좋은 집사들을 주셨습니다. 집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2. 구제하는 7 명을 세운 결과(7 절)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원리대로 바르게 구제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복음적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6:8-8:13 에서 스테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 명을 세운 결과에 대해 7 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구제를 담당할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사도들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말씀을 더 잘 배웠습니다. 교회에 불평이 없어지니까 모든 성도가 평화롭게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교회 바깥으로부터 불신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믿음에/으로 복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8 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도행전 6:7 에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생육하고, 자라고)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번성).” 5 절, 온 무리는 ‘많이 번성한 자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의 배반 때문에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지만 사실상 지옥을 향한 번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계획하신 복된 생육과 번성을 새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사람이 된 제자들(경건한 사람)의 수를 많아지게 하십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일입니다. 언약의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는 것은 그냥 인구 성장과는 다릅니다. 제자의 수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수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성도의 수가 성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부지런히 풍성하게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말씀을 달게 받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이 자라지만 성도의 수가 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겨울의 추위 가운데서도 보리는 푸르게 서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많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봄을 기다리며 추위를 참고 견딩니다. 봄이 오면 쑥쑥 자랍니다.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에서, 가정 경건회에서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합시다.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복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풍랑같은 문제를 보기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직분자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문제가 많이 보일수록 더 기대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3.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집사 스테반(8-15 절)

9 절,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과 스테반이 복음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리버디노는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해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회당은 노예였던 사람이나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회당입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회당입니다.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합니다(10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을 몸은 하늘에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습니다(눅 12:12, 21:15).

그들은 스테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곳(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고소합니다.

전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는 죄목으로 죽였습니다(마 26:60-61).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율법을 폐한다고 계속 비난했었습니다(안식일 어김: 눅 6:1-4, 13:10-17, 14:1-6).

스테반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갑니다. 동시에 부활 길을 따라 능력을 행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15 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리스도 사건이 스테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7 명의 사람들은 집사직 그 자체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복음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껏 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집사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집사직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에 가까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자인 사도가, 지금의 말씀 사역자인 목사와 다른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각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세운 집사도,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복음을 힘껏 전합시다.

민고 복종할 일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말씀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성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자 그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평하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출했습니다. 구제에 관한 교회의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구제도 효과적으로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집사들도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사를 주셔서 목사의 말씀 전파 사역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더욱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스데반은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에, 직장 생활에서 일하시고 있는 일을 간증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과는 다르게 선하게 사는 그 삶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사랑은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깜작 놀라게 하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손발을 움직여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과 나눕시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보편교회 교인들의 속성; 불평(1 절)

헬라과 유대인들이 불평했습니다(공기조: 공기가 많은 데도 공기 조 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구약교회도 많이 불평했습니다. 출애굽 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 생활할 때도 구약교회는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없으면 계속 불평했습니다(공기조: 출 16:7, 8,8,9,12.민 14:27,27,29, 디아-공기조: 출 15:24, 16:2,7).

우리 주님이 몸으로 세상에 계실 때 성경을 잘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계속 주님께 불평했습니다(공기조: 눅 5:30, 디아-공기조: 눅 15:2, 19:7).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계속 은혜 베풀었습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교회가 동질적인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동시에 교인들이 불평하는 죄인이라는 점에서도 계속 같습니다.

<참고>마땅하다=기쁘게 한다(2 절)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2 절) “마땅하다”(아레스토스)는 “기뻐할 일이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는 신약에 4번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일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행 12:3).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요 8:29)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을 것을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요 8:26-29).

사도 요한은 교회에 말합니다(요일 3:21-24)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아레스토스)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습니다(5 절). 7 집사를 교회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운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일”(요일 3:22)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요일 3:24). 사도들 안에, 교회 안에, 일곱 집사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참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의 주장을 이긴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안티-히스테미) 못하니”(8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상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 갈 때, “성령이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눅 12:12).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안티-히스테미, 안티-레고, 눅 21:15) 없는 구재(말씀씨)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참고> 7 절, 말씀이 왕성하고(아욱사노) 제자들의 수가 많아 짐(플렌티노)
= 생육하고(아욱사노) 변성하라(플렌티노, 창 1:28)**

6:7 은 창세기 1:28 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프루) 변성하라(르부).” 생육과 변성의 헬라어 번역은 “아욱사노”와 “플렌티노”입니다.

두 단어를 사도행전 6:7 에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고(아욱사노, 생육하고, 자라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플렌티노, 변성)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생육하고 변성하게 하신 계획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역사적 비유

성경은 역사적 비유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역사가 우리를 위한 비유처럼 사용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구약을 통해 복음 전하고 순교
(찬송 22 장)**

2026-6-16, 화

맥락과 의미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당시 유대인들의 국회)에서 심문받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심문받았던 기관입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심문을 받으며 변호하는 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스데반의 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너희 조상과 너희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 율법을 사랑하는 너희 조상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다. 그리고 그 의인(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결국 너희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성전 없이 예배 드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다.”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순교당했습니다.

- 1. 스데반의 설교: 성전과 율법의 본질(1-53 절)
- 2. 스데반의 순교(54-60 절)

1. 스데반의 설교: 성전과 율법의 본질(1-53 절)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번성함(1-8 절)

2 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을 때 그 땅을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외국 땅에서 400 년간 나그네 되고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8 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과 기업의 특권을 전수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백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2)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서,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감(9-16 절)

9-10 절: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 말을 통해 스테반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제사장들도 조상처럼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였습니다(마 27:28). 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있습니다(행 5:17).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은총”(은혜)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스테반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과 구제를 담당하던 7 명의 직분자에게도 “성령,” “지혜,” “믿음”(6:3,5,10)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10 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마 2:5)로 세운 것과 비슷합니다.

3) 이집트에서의 번성과 출애굽- 율법의 불순종(17-43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집트에서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17 절).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도 고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6:7 에서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 많아지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스테반은 모세의 인생을 40 년 단위로 나누어 세 시기로 설명합니다.

① 이집트 왕궁에서 40 년(20-28 절)

모세는 나일 강가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딸에게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신 것과 비슷합니다.

24 절, 모세는 “원통한 일”을 당한 형제를 보호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27 절)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스테반이 설교하던 그때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② 광야에서 목자로서 40 년(29 절)

③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인도하는 40 년(30-43 절)

모세가 40 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생활한 후 하나님께서 가지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33 절)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땅”, 혹은 ‘장소’라는 단어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행 6:13).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광야도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에도 나타나셨습니다(34 절).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35 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이 표현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2:23,24)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5:31)는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해서 모세를 거절했듯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38 절,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조상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37 절, 신명기 18:15)고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행 3:22).

42 절, 스테반은 아모스 5 장(5:25-27)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막을 받았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했습니다. 스테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율법과 성전을 자랑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4) 성전에 대한 바른 가르침(44-50 절)

44-46 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막으로 만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왔습니다.

47-50 절: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48 절)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이사야 66:1)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어 그곳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51 절).

5)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를 지적함(51-53 절)

유대인과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스테반은 지적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다고 고소했습니다(6 장).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그 문제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이렇게 잘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에 매이는 분이 아님을 잘 말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여기서 끊깁니다.

2. 스테반의 순교(54-60 절)

그들은 스테반의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55 절,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데반, 네가 땅의 법정에서 나를 위해 혼자 서서 복음을 변호하며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늘 법정에서 너를 위해 서서 변호하고 있다. 네가 쓰러질 때 나는 하늘에 서서 너를 환영한다.’ 그리스도께서 스테반을 변호하고 인정하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56 절, 순교의 길을 가면서 스테반은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들은 “일제히”(한 마음으로)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1:14, 4:24).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도를 죽이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두 마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그 두 마디 말을 스테반이 반복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59 절, 눅 23:46)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 절, 눅 23:34)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스테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습니다. 스테반은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맡은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58 절).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옷을 맡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만드는 데 앞장선 이 청년이 곧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민고 복종할 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 건물 자체에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건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단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공동체, 그들의 모임과 예배를 말합니다.

스데반은 성경의 내용이 모두 그 머리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율법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서를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계시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시다.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삶을 통해 능력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극심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의지할 때,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갑시다.

만약 스데반처럼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 온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9 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함 -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함, 사도들을 시기함

조상들(페트리-아르케)이 요셉을 시기하여(젤로오)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처럼 대제사장(아르크-히에루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프토노스)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였습니다(마 27:18).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시기하여(젤로스, 행 5:17) 감옥에 가두고 때린 다음에 석방했습니다.

<참고> 10 절, 통치자 요셉 =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10 절, 바로가 요셉을 “통치자”(헤게오마이)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스리는 자”(헤게오마이, 마 2:5)로 세우셨습니다.

<참고> 33 절, 곳(장소)=성전(6:13)

“곳”(토포스-헬라이어, ‘마콴’-히브리어)은 구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6:13 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참고> 35 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관리와 속량하는 자

35 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카타-히스테미)라는 표현은 2:23,24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아나-히스테미)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관리(아르콘)와 속량하는 자(뤼트로테스)” (35 절)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임금(아르케고스)과 구주(소테로스)” (5:31)로 세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스데반은 이런 말을 통해서 모세가 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

**핍박받는 성도를 통한 유대 사마리아 전도:
집사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지역 전도와 에디오피아 사람 전도
(찬송 시편 19 편 3-6 절 – 악보는 맨 뒷장에)**

2026-6-17, 수

맥락과 의미

8 장은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자세히 전합니다.

1.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1-8 절)
2.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9-25 절)
3.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26-40 절)

1.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1-8 절)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남쪽 유대 지역, 중부 사마리아 지역(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를 섞어서 예배하는 곳)으로 확장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6 절,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로 “큰 기쁨”(8 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사도들은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던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2-6 장). 이제 구제를 맡은 7명의 직분자도 복음을 전하고(스데반,

6,7 장)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집사들은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사도가 하던 일을 지금은 목사, 장로, 집사가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신비하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같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회개와 치유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적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5:41). 우리의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물질적 어려움을 기도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견디게 하십니다.

2.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9-25 절)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되는 듯이 말했습니다(9 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사람을 모은 것과 비슷합니다(5:36).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신, 神)의 능력”으로 불렀습니다(10 절).

사실은 그가 행한 마술은 마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사탄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12 절)을 보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닌 위선적인 믿음이었습니다(13 절). 단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표적에 이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나 돈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찾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14 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 받기를 기도”(15 절)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방언을 주신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인 교회임을 표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방언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도 전도하고 성도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서는 다른 은사들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은 후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방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에 대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고전 14:13-16). 한국말로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큰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아직도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19 절). 베드로는 그의 악함을 책망했습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22 절).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은 돈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21 절, “이 도(말씀)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신 12:1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3 절, “악독이 가득하며”는 ‘악독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시몬은 사탄이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5:3) 같은 사람입니다. 백성이 사도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충만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5:17)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하던 사탄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계속 일합니다. 사도들은 사탄에 흔들리는 교인 시몬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24 절, 시몬은 베드로의 권징의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가 완전히 회개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자기 잘못을 알고 교회의 직분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자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종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3.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26-40 절)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앞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 나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5:20) 이제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사로 가는 길까지.”

빌립은 그 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가사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에디오피아로 갈 것입니다. 그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29 절,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내시는 이사야 53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입니다. 내시는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지도해 주는(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31 절)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분자를 주신 것에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겸손하여 낮아질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32-33 절, 이사야 53:7,8)

내시는 물었습니다. “여기 나온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킵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빌립은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했습니다(35 절). 그 성경뿐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메시아 예언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35 절). 예수님이 구약 성경으로 자신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눅 24:43-47).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고(행 5:28-32), 이제 집사가 계속합니다.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38,39 절, 내시가 빌립과 “물에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39절, 주 예수님의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빌립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적적인 현상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 내시는 “기쁘게”(39 절) 그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내시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기적을 경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에 다시 병이 생깁니다.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여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세상의 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상 끝에서 온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의 터키, 그리스,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갈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1 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읍시다.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읍시다. 그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오래 참음, 곧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살아갑시다(갈 5:22,23).

민고 복종할 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보내셨습니다.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악도 계속 정화해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온 세계에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 주신 직분을 다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눕시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믿고 세례받음, 성령, 방언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님을 받지 않고, 나중에 세례 후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성도를 섬기도록 성령의 은사를 계속 주십니다.

초대 교회에 특별히 방언과 같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그 뒤의 교회로 연속하여 발전하고 있음과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은사=방언이 예루살렘 교회(2장)에서 시작되어 사마리아 교회(8장), 로마인 고넬료(8장), 소아시아=터키의 에베소(19장)에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 같은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미 세계 교회의 하나 됨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런 방언의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과 같은 은사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잘라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개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주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앞에 우리의 말은 항상 겸손하도록 합시다.

방언이 풍성하던 초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 14:39). 성경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는 방언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일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언은 원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미래에 관한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 말씀을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기 사랑하듯이 방언을 구하지 맙시다. 성령님께서서는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방언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방언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행 2:11, 고전 14:14-16)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말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간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맙시다. 지금 우리와 다른 사람도 듣고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말을 사랑합니다. 우리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찬양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보통 말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더 좋은 선물입니다.

<참고> 역사적 교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 교훈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성경에 쓰여 있는 기적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이나 빌립 집사가 기적을 행한 것(6 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사라진 것(39 절) 같이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로만 이해하고 현재 주시는 유익은 없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잇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느 시대나 교회로 부름 받은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의 성도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때에 교회에 일어나게 하신 일에는 어느 시대에나 주시는 보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참고> 21 절,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메리스)와 분깃(클레로스), 두 단어는 하나님의 기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신 12:12).

<참고> 26 절,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 베드로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말하라”(5:20)

주님의 천사가 이제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아나-히스테미).” “가라(포류오마이).” 전에 감옥에 갇힌 사도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계속 나아가라(포류오마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히스테미) 말씀을 말하라.”(5:20)

빌립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 갔습니다(27 절). 그들이 함께 “가다가”(36 절)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갔습니다”(37 절). “간다”(포류오마이)는 사명의 길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시기 위해 기도하며 가셨습니다(눅 4:2, 7:6).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신 길입니다(눅 9:51-53).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길입니다(행 5:20,41).

예수님을 따라, 사도들을 따라, 집사 빌립을 따라, 이제 이방인 내시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고> 전도자 빌립의 사역 (출처: ESV 성경 지도)



사도행전 9 장

주님께서 사울(바울)을 부르심과 전도를 시작,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교회의 성장, 베드로가 룻다와 옴바에서 성도를 고치고 살림 (찬송 360 장)

2026-6-18, 목

맥락과 의미

9 장의 앞부분은 스테반을 죽이는 일(6,7 장)의 주동자인 사울(8:1)을 전도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바울입니다.

9 장의 뒷부분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전도는 5장에서 나온 후, 6-8장에서 중단되었다가 9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울과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니다.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이스라엘 지역의 남, 북, 중부)에서 든든히 서 있다(31 절)고 요약합니다.

이 요약 앞에는 바울의 회심과 사역, 뒤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뒤에 둡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방 교회를 세울 바울의 이야기를 앞에 둡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를 마치 쇠사슬의 고리처럼 앞뒤로 묶고 있습니다.

1. 사울(바울)의 회심(1-19 절)
2. 사울의 복음 전파와 핍박(20-25 절)
3.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함(26-31 절)
4. 베드로의 두 기적(32-43 절)

1. 사울(바울)의 회심(1-19 절)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 헐박과 죽이려는 마음을 그의 영혼으로부터 뺏어내고 있습니다. “등등하다”는 ‘안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는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 시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추적하며 따라잡니다. 시리아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허락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사울은 들고 갑니다.

그가 길을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빛 때문에 엎드려졌습니다(24 절). 소리가 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4 절)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5 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5 절)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핍박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핍박한 것은 사실상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끄러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10-12 절, 다메섹에 있던 제자(성도) 아나니아에게 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게 찾아가라. 아나니아, 네가 그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작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평안을 얻읍시다.

13-14 절,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주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15 절,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주동자를 이방인과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15 절, 이름을 “전한다”는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16 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도 맡겨 주신 직분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와 능력을 받으시다.

17 절,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가서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19 절, 사울이 “강건해진” 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은 결과, 영적으로도 강건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죄와 고통에 눌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2. 사울의 복음 전파와 핍박(20-25 절)

20 절, 사울은 다메섹 “각 회당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21-22 절, 사람들이 사울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사울이 “강건해진 것”(19 절), “힘을 얻은 것”(22 절)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힘을 주신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힘을 주십니다.

23 절, “여러 날이 지나매.” 그는 3 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갈 1:17). 다시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24 절) 했습니다.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부하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고후 11:32,33). 당시 아라비아는 다메섹에 자기 나라 사람을 다스리는 관리를 두었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보복하려고 그를 죽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5 절, “그의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라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교회)입니다. 다메섹 교회의 교인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

구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양을 해치던 이리같았던 바울이 양들의 선한 목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도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살 것을 기대합시다.

3.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함(26-31 절)

26 절,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갈 1:18). 거기서 그는 제자들을 사귀려 했습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와 연합하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줍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29 절, 사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스테반과 유대인이 벌이던 변론(6:9)을 사울이 계속 이어갑니다. 순교자의 피는 순교한 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에 스테반을 반대하던 자들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갑시다.

31 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성장한 것을 요약합니다. 교회는 주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주 여호와로 두려워하며 사랑할 때, 교회와 우리 자신은 든든히 섭니다.

“성령의 위로”는 말씀을 배울 때 생기는 위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합시다.

4. 베드로의 두 기적(32-43 절)

32 절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가는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이사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도록(10 장) 그를 그 지역으로 이끄십니다.

룻다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32-35 절).

옘바에서 행한 두 번째 기적: 옘바에서 다비다(도르가)라는 죽은 여성 제자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36-43 절).

다비다를 고칠 때 베드로는 “사람을 다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적의 치유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40 절)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은 전에 예수님이 한 아이를 살리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죽은 아이가 있던 곳에서 그분을 모시러 사람이 왔습니다(마 9:25). 예수님은 전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눅 8:5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여 몸이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시체와 같이 죽은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기 있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와 옘바로 인도됩니다. 성령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전도하기 위해 그곳과 가까운 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민고 복종할 일

예수께서 약속하며 예고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하게 핍박하던 사울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방인 장교를 전도하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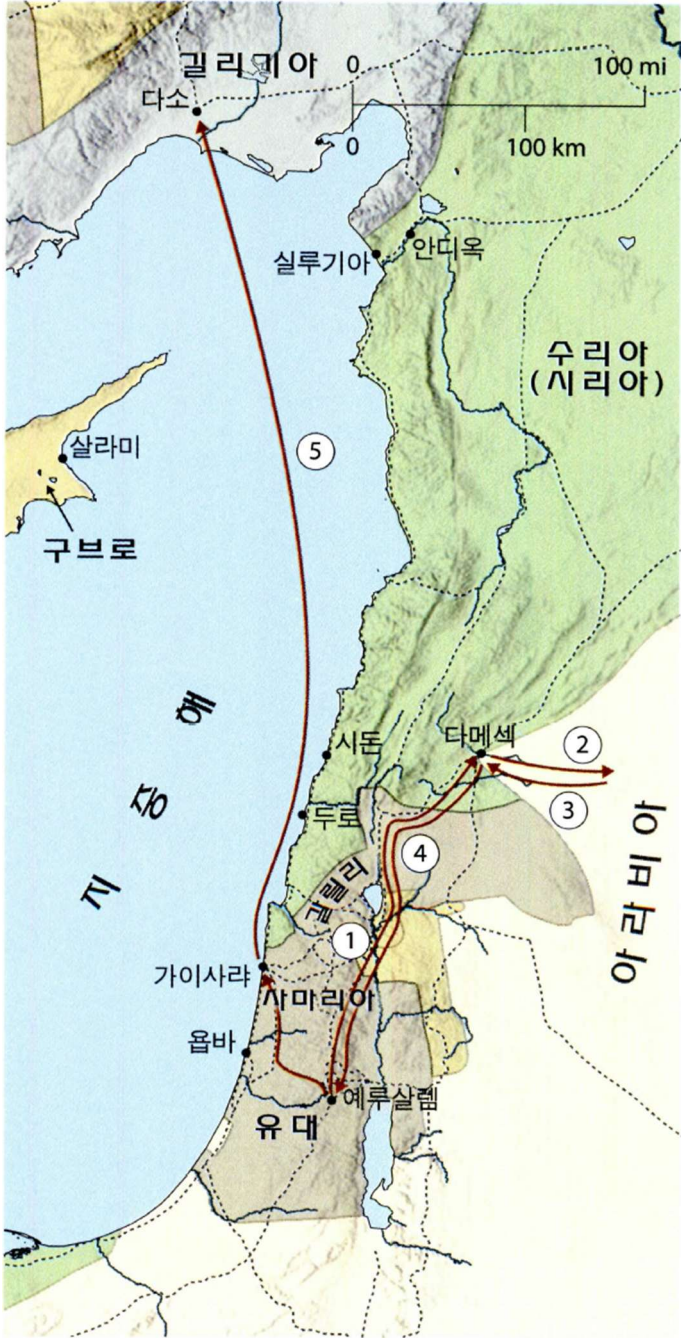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합시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모든 사람을 대합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위로로 가능합니다. 교회의 지체로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당합시다.

주님은 그때처럼 환상으로나 병을 치유하는 일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일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고> 바울의 회심과 초기 여행(출처: ESV 성경 지도)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방인 구원의 시작
(찬송 1 장)**

2026-6-19, 금

맥락과 의미

10 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 행동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신앙, 신학)을 열어줍니다. 9 장에서 이방 교회를 개척할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10 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구촌 전체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요 역할을 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 말하십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시하십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교회에 증언할 것입니다(11 장).

1.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보인 환상: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함(1-8 절)
2.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 부정한 짐승을 제사 음식으로 먹으라 함(9-16 절)
3. 성령님의 지시가 있고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데리러 옴(17-22 절)
4. 고넬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임함(23-48 절)

1.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보인 환상: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함(1-8 절)

1 절,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중대장에 해당하는 로마 군대의 직책입니다. 100 명의 군인을 지휘합니다. “이탈리아 부대,” 곧 이탈리아 대대에 속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대는 황제의 대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대는 600 명의 병사, 즉 6 개의 중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2 절). 그는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신앙으로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제 9 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오후 3 시입니다. 성전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 중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4 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의 기도와 구제는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었습니다.

6 절, 그 천사는 “무두장이”(가죽장인) 시몬 집에 묵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합니다. “이튿날”(9 절) 고넬료는 자기 집의 개인 하인(종) 2 명과 부하 군인 중 역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 1 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2.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 부정한 짐승을 제사 음식으로 먹으라 함(9-16 절)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입니다. 그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던 욕바의 해변 집에 도착할 무렵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9 절). 제 6 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침저녁 번제 시간뿐 아니라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대개 식사 시간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원래는 식사 기도는 식사 감사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릇의 네 모퉁이를 하늘에서 줄로 매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릇 안에는 땅의 여러 발 가진 짐승, 기는 곤충, 하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4 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동물과 표현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회복되는 시대를 여시고 있습니다.

13 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잡아 먹어라.” 이 말은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리고 먹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14 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그릇 안에는 구약 율법에서 정한 깨끗하지 않은 짐승, 속된 짐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돼지와 같은 짐승을 말합니다. 보통 식사용으로도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을 말합니다. 속된 것은 노루 같은 짐승입니다. 보통 식생활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성전 제사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레위기 11 장). 그런데 하늘에서 잡아먹으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음식과 제사와 관련한 의식적 율법을 개정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구원의 새 시대를 연 다음에, 전에 금지했던 모든 고기를 이제는 자유롭게 먹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으로 간주된 이방인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를 여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하늘로부터 무언가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시로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 이제 사도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내려오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늘로부터 선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지구촌 전체, 보편 교회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와 교회들에게도 계속됩니다. “베드로야,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나는 죄인들, 이방인을 내가 기뻐하는 선물로 받겠다.”

3. 성령님의 지시가 있고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데리러 오(17-22 절)

베드로는 아직 환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20 절)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이방인을 믿게 하여 제물로 바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롬 15:16).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깨닫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의 명령은 단순 명료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순종하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하룻밤 같이 잡니다. 다음날 읍바에 있던 몇 명의 형제도 함께 떠납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래 3 명의 이방인 형제가 고넬료로부터 왔습니다. 읍바에서 베드로를 제외한 유대인 형제 3 명이 함께 했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으로 사실을 확증합니다. 7명의 형제가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함께 나갑니다.

4.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임함(23-48 절)

1)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자 본 환상을 말함(23-33 절)

23 절, 그들이 떠난 다음날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4 일째 되는 날입니다. 베드로 일행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25 절). 가는 동안에 한 곳에서 숙박하고 나서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 절, 그는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마 천사로 안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는 자신도 보통 사람 중 하나요, 성도 중 한 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증거합니다(27-29 절). 고넬료도 자기가 본 환상을 증거합니다(30-33 절).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33 절)

이것이 교회요, 예배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환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시대에 몇 사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는 기적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2)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34-43 절)

35 절, 베드로는 이제야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이방인)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본 환상은 음식을 통해 이방인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36 절,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 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다(엡 2:11-23). 그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38 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39-40 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43 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초대합니다.

3)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여, 물로 세례를 줌(44-48 절)

44 절, 베드로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모인 자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46 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2:11)을 말한 것이 이방인의 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언은 방언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회복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방언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성령강림 현상이 이방인에게 반복되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서 시작하신 그 교회가 지구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온 세계 교회에 흠어져 있는 보편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민고 복종할 일

1:8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한 환상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베드로와 교회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들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갇히지 말고,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드립시다.

베드로가 자신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겸손을 배웁시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17 절,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함

베드로가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직후에 환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해 했습니다(디아포레오). 그 의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사도행전 5:24 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바리새인 출신)도 의혹했습니다(디아포레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음

39 절, 베드로와 사도들은 증인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택한 증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40-41 절).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일도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45 절)의 증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됩니다. 성경 말씀의 증거를 신실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갑니다.

<참고> 특별한 은혜의 수단(환상과 방언)의 시대는 끝남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면서, 특별한 은혜의 수단(환상과 방언 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통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은혜의 수단인 환상과 방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을 매일, 매주일 주십니다. 겸손히 기쁘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단순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 체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말씀 전과와 함께 주신 방언의 표적보다 더 좋은 표적으로 교회에 계속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례와 성찬을 표적과 도장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교회가 복음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에 참여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보통, 항상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 방언이나 환상을 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경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매일 주시는 식탁을 감사하게 받는 자녀가 효자 효녀입니다.

방언을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예언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매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말씀을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를 통해 교회에 풍성히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목사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 교회처럼, 환상이나 방언, 병의 치유로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은 교회 안에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지금도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1 장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을 받아들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 (찬송 325 장)

2026-6-20, 토

맥락과 의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처음에는 사도들과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 장에서 먼저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11 장에서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칩니다.

1-18 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에 보고합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19-30 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보편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1.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함(1-18 절)
2.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확장됨(19-30 절)

1.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함(1-18 절)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2 절). “네가 무할례자(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3 절).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정했습니다(레 11 장).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서 먹으면 금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마 9:11).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4 절,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5 절,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생활하는 세계와 다른 영적 세계, 그 객관적 세계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고기들이 내려오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7 절, “잡아 먹으라.” ‘잡는다’는 제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8 절, “안 됩니다. 부정하거나 속된 음식이 저의 입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9 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음식에 관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부정하고기(보통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와 속된 고기(제사용으로 드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정해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속된 고기/짐승을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와 의식에 대한 모든 율법(ceremonial law)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은 바꾸지 않으시지만 형식은 바꾸십니다.

아울러 전에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개정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12 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12 절, 10:20 도 같은 단어)

2 절의 “비난”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항하여 소송하듯이 갈등하며 의심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차별한다”(15:9)는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민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형제”(12 절)가 베드로와 함께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없는 유대교 신자) 3 명과 읍마의 교회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 3 명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증거합니다. 14 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고넬료와 거기 모인 그의 친척, 친구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방언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방언을 특별한 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에게 임한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계속 교회/성도 안에 오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을 마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17 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18 절, 듣고 있던 성도들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 성도들은 고요히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2.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확장됨(19-30 절)

19 절, 스테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가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베니게”(페니키아, 이스라엘 국경 북쪽의 항구 도시)와 “구브로”(지중해의 사이프로스 섬)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헬라적인 도시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출신의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 몇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21 절).

22-23 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로 보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 자)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4 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물질로 섬겼습니다(4:36,37).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25 절).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되도록 곁에서 섬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 영적 양식을 더 풍성히 공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 세계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에 복음을 나누고,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물질을 공유합니다(롬 15:27).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서로 돕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로서 자라갑니다.

믿고 복종할 일

1:8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굳어 버린 고정 관념을 바꾸기 위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 집에 방언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늘의 성부와 성자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온 세계 보편 교회를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6 장에서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과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8:4). 이제는 스테반의 순교와 핍박의 영향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이방인 교회에서 반복되었습니다. 2 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이 10,11 장에서 이방인에게 반복됩니다. 5 장에 나타났던 바나바가 11 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9:1)은 회심하고,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다시 등장하여,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동일한 교회가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과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보편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폐쇄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성도를 환영합니다. 우리와 다른 성도를 환영합니다. 온 세계 교회의 하나로서 보편교회 의식을 가집니다. 온 세계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할 마땅한 섬김을 다합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4 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베드로가 설명

신앙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바깥에 실제로 있는 것을 바로 알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하실 일을 작정(계획)하신 것,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신 것은 우리 바깥에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마음으로 깨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환상과 보통 말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보통 말로 증거해주었습니다. 우리 바깥의 구원의 일을 말을 통해 배울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도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덕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의 믿음도 내 바깥에 계시면서 나를 방문하시는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주관적이지만, 항상 내 바깥의 것에 기초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진리를 배우고 믿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이 항상 굳게 그를 지탱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참고> 충분한 증인 세명의 유대인 형제와 세 명의 이방인 형제

“여섯 형제”가 베드로와 함께 왔습니다. 고넬로가 보낸 이방인(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없는 유대교 신자) 세 명, 율바의 교회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 3 명입니다.

모든 재판에는 증인이 두세 명 있어야 합니다. 이 6 명은 보통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의 증언 효과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합쳐서 7 명인 직분자 팀입니다. 구제를 담당하던 일곱 직분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참고> 세 번이나 반복된 증거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과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10-11 장에서 세 번 반복됩니다. 첫째, 10 장에서 그 사건 자체를 누가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각각 자신이 본

환상과 천사에 대해 말해줍니다. 셋째, 11 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말해줍니다.

세 번 반복한 것도 ‘두세 명의 증인’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일과 계시는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또, 성경에서 반복되는 사실(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아주 중요하므로 그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참고> 4 절, 차례로 설명

4 절, “차례로 설명합니다”(카텍세스 액.띠테미).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차례대로”(카텍세스) 설명하는 것입니다(눅 1:3).

행 18:26 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아크리베스 액.띠테미). 아볼로는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성장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질서 있게 배워서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참고> 18 절, 잠잠함

18 절, 베드로가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서 하신 일을 말할 때, 듣고 있던 성도들은 “잠잠하게”(헤수카조)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고요히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고요하고(헤수키오스) 단정함”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딤펴전 2:2, 뱌전 3:4).

특히 여성도들은 “잠잠함으로”(헤수키아) 순종하는 은사/직분을 받았습니다(딤펴전 2:11,12).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순종합니다. 여성도는 고요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참고> 바나바는 구제를 위해 선출된 7명과 비슷함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위해 선출한 7명과 같은 자질이 있습니다(6:5). 그는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물질로 섬겼습니다(4:36,37). 스테반, 빌립 등이 복음을 전도하듯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테반 등 7명이 구제하는 일을 지금은 집사가 계승했습니다. 집사는 단지 성도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집사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를 돕습니다. 집사 스스로 전도도 해야 합니다. 집사와 그의 가정의 삶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의 구제를 맡은 7명의 직분자는 지금의 집사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정영철 시편 19 편”을 검색하여 들으며 연습하세요.

시편 19

지휘자에게, 영장으로 한 노래

Strasbourg, Geneva, 1542/Lyons, 1548/Daejeon, 2005

1. 하 나 님 영 광 을 하 늘 이 선 포 해 주 님 의 솜 씨 를
 2. 저 해 를 위 하 여 장 막 을 치 시 니 방 을 나 오 는
 3. 여 호 와 울 법 은 다 완 전 하 여 서 영 혼 을 살 리 네
 4. 여 호 와 경 외 함 이 참 순 결 하 여 서 영 원 히 서 있 네
 5. 주 님 의 종 들 이 그 말 씀 주 고 죄 가 받 도 다
 6. 고 범 죄 로 부 터 보 호 해 주 소 서

■ 궁 창 알 리 네 낮 은 또 낮 에 게 말 씀 전 하 고
 신 량 과 같 도 다 제 길 을 신 나 게 달 리 용 사 라
 ■ 여 호 와 증 거 는 은 제 민 을 만 하 여 서 지 끝 까 지 의 시 롱 으
 말 씀 을 지 키 는 서 온 주 님 의 종 되 어 은 큰 상 역 벗 으
 리 소

■ 밤 은 또 밤 에 게 지 식 을 전 하 네 이 야 기 말 소 리 는
 하 늘 이 끝 에 서 서 솟 아 올 라 와 서 저 마 하 늘 저 끝 까 지 네
 ■ 무 수 한 금 허 물 들 에 는 다, 을 다 저 날 마 정 정 금 보 다 도 아 더 사 모 할 것 이 네
 내 입 의 말 들 과 과 날 음 의 목 상 을 열 납 해 주 으 소 서

■ 들 리 않 아 도 그 소 리 온 땅 에 저 멀 리 퍼 지 도 다
 힘 차 게 리 니 그 소 리 온 땅 에 저 멀 리 퍼 지 도 다
 ■ 여 호 와 보 다 더 내 자 는 다 못 하 는 내 자 는 다 못 하 는 내 자 는 다
 내 반 석 구 원 자 는 다 못 하 는 내 자 는 다 못 하 는 내 자 는 다